

# 불교용품, 코끼리 학살의 주범인가?

### 2012년 한 해만 2만 2천마리 죽어

살생을 금하는 불교. 하지만 불교 때문에 죽어가는 동물들이 있다.

모순적인 상황의 주인공은 바로 코끼리. 야생 아프리카 코끼리들이 작년 한 해 학살된 숫자는 2만 2천마리에 달한다. 오로지 상아를 얻기 위해서다. 사진에서 보듯 마구잡이로 포획되어 상아를 제거당한 코끼리는 쓸모없이 버려지기 마련이다. 불멸한 사실은, 이러한 무자비한 학살의 뒤편에 불교가 상당부분 관련되어 있다는 것. 불법 포획된 코끼리의 상아로는 코끼리 조각상이나 행운을 비는 부처 등 불교용품을 만든다. 상아 시장의 최대 거래국이 중국과 태국이라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 소비자 역시 불교도가 많다.

불교에서 코끼리는 상서로운 동물로 여겨진 지 오래. 마야 부인이 부처를 잉태했을 당시 코끼리 꿈을 꾸었다는 것에서부터 석가모니를 협시하는 보현보살 또한 코끼리를 탄 모습으로 자주 그려지는 등 코끼리는 불교에서 위용과 덕을 상징한다. 때문에 코끼리 형상 등을 지니고 있으면 행운이 올 것이라는 믿음 또한 불자들 사이에서 자연스레 자리잡았다.

‘코끼리 스님’이라고 알려진 태국의 크루바 다르마니 스님은 자신의 사찰에서 아시아코끼리들을 기르지만, 동물보호 활동가들은 그가 상아로 부처상을 만들기 위해 코끼리 한 마리를 굶겨 죽였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지는 ‘상아 숭배(Ivory Worship)’라는 제목으로 “중국은



상아를 얻기위해 학살당한 코끼리들은 땅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진다(사진 왼쪽). 그렇게 얻은 상아로는 불교 사원, 코끼리, 부처님 상 등 여러 불교 용품이 조각된다. (사진 오른쪽, 출처: 내셔널 지오그래픽, 브렌트 스티븐)

상아 최대 밀수국이다. 2008년만 해도 아프리카에서 상아 66톤을 합법적으로 사들였다. 그 이후 코끼리 밀렵과 상아 밀수가 모두 급증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 물웅덩이에 청산가리 넣어 폐죽음 시키기도

### 급증하는 코끼리 상아 수요 감당키 위해

### 불교 용품 등 종교 의식에 상아 활용

이렇게 모은 상아로 만든 불교 용품 시장 규모는 한 해 15조원에 달한다. 상아 가격 역시 지난 8년 사이 킬로그램당 10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20배 가까이 올랐다. 때문에 손쉽게 상아를 얻으려는 밀렵꾼들만 급증하고 있다. 코끼리들은 그럴수록 무자비하게 학살당하고 있다.

얼마 전 짐바브웨에서는 밀렵꾼들이 청산가리를 물웅덩이에 타놓아 80마리가 넘는 코끼리들이 폐죽음을 당했으며, 카메룬에서는 수류탄과 소총으로 무장한 밀렵꾼들이 한번에 300마리가 넘는 코끼리들을

죽였다. 코끼리들만 죽는 것은 아니다. 케냐에서는 작년에만 국립공원 경비대원 6명이 코끼리를 보호하려다 목숨을 잃었고, 공원 경비대가 사살한 밀렵꾼은 23명이었다. 코끼리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 and Flora, 이하 CITES)에 지정되어 포획은 물론 상거래가 규제되는 등 전세계적으로 보호되고 있다. CITES는 “이런 상황에 제동이 걸리지 않으면 향후 10년간 코끼리 개체수의 20%가 사라진다”며 각성을 촉구했다.

물론 일부 아시아 지역의 타 종교에서도 코끼리 상아와 관련된 수요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필리핀에서는 성상으로 조각돼 다른 나라로 밀반출되기도 하는 등 종교 의식에 상아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과는 상관없이 불교 지도자들 또한 이런 현실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지의 인터뷰를 통해 “내 눈에는 코끼리로 만든 성상이 아니라 오로지 신만 보인다”고 말한 타 종교인의 물자각적인 말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 CG덕분에 ‘환골탈태’ 한 금강역사

### 도쿄대, 2년 걸친 작업 끝에 화려하게 원형 복원 마무리

8세기 경 만들어진 금강역사상이 컴퓨터그래픽 덕분에 화려한 새 옷을 입게 됐다. 만들어진 지 1300년이나 된 탓에 색이 벗겨진지 오래였지만, 남아있는 염료의 색과 성분을 파악하는 과학 작업을 통해 복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원형 그대로 다시 태어나게 된 금강역사상의 모습은 바로 전 모습이 상상이 안 될 정도로 화려하다. 연두 노랑 주황 파랑 빨강 등 쓰여진 색만 수십 가지. 입고 있는 옷의 무늬도 복잡하며 다채롭다.

복원하기까지 2년이나 걸린 이번 작업은 도쿄 예술대와 과학대의 협업 덕분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나라 시대(729~749)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역사상은 1미터 73센티미터 길이로 일본 도다이지(東大寺)에 보관돼 일 년에 한 번씩 공개된다. 도다이지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길이 16미터의 대불과 세계최대의 목조건물로 유명하다.



원형의 색을 돌리기 위해 조사작업에만 2년의 시간이 걸렸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화려한 모습을 되찾은 도다이지의 금강역사.

일본의 불교는 백제에 의해 6세기 중반 전래되었다. 배현진 기자

# 부처님 사리, 포트워스 기독교계 영성 자극

### ‘Loving Kindness’展, 12년 간 65개국 150만여 명 관람



마리즈 페켄(Marzi Pecan) 사진 오른쪽) 박사가 포트워스(Fort Worth)에서의 ‘Loving Kindness’展 오프닝 행사로 ‘부처님 유골 사리’를 포트워스 불교 공동체 대표 이자벨 우마나(Isabel Umana)에게 건네고 있다.

노르부 린포체(Norbu Rinpoche)의 ‘Loving Kindness’展이 6일 미국 텍사스 주 포트워스(Fort Worth) 전시회를 끝으로 멕시코를 필두로 남미 순회 전에 나섰다. 〈달라스 뉴스(Dallas News)〉지가 12월 4일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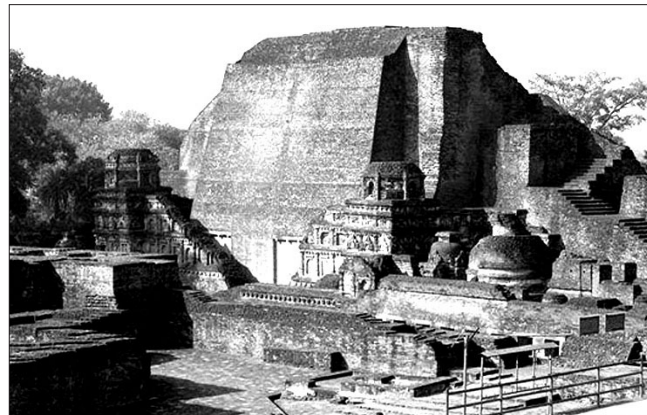
특히 〈달라스 뉴스〉지는 “부처님 유골 사리가 포트워스 유니티 교회(Unity Church)의 교도들에게까지 깊은 인상을 심어줬다”고 밝히고, 유니티 교회 교도인 헤레라(Herrera·32)의 말을 인용, “부처님 유골 사리에서 전해지는 송고함은 기독교와 불교라는 종교의 벽도 허물 정도”라고 보도하고, “우리는 깊은 연민에 함몰될 수밖에 없었다”는 반응을 덧붙였다.

‘Loving Kindness’ 전은 12년 전 노르부 린포체가 부처님 유골 사리 등의 소장 유물을 이윤하며 세계 전시 투어를 시작한 이래 미주·유럽 지역의 65개 국가, 150만여 관람객의 영성을 자극한 순회 전시로 알려져 있다.

‘Loving Kindness’ 전의 수석 큐레이터 마리즈 페켄(Marzi Pecan) 박사는 “지난 2011년 세상을 떠난 노르부 린포체는 ‘Loving Kindness’展을 통해 ‘인내와 존중’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담기를 희망했다”고 전하고, “바로 이 점이 종교를 허물고 누구나 관람하고 영성을 자극할 수 있는 성공적인 순회전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오종욱 편집위원

# 라지기르, ‘친환경 불교성지’ 선언

### 비하르주 관광청, 40 마이크론 미만 폴리에틸렌 제품 금지



인도 비하르주에 있는 라지기르는 8대불교 성지이자 왕사성으로 최초 불교대학인 나란다 대학 등의 불교 유적이 많은 곳이다. 라지기르는 친환경 지역을 만들기 위해 비닐 백을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은 나란다 대학 유적 일부(사진 왼쪽)와 비닐백 사용금지 표시.

인도의 8대 불교 성지이자 왕사성으로 널리 알려진 라지기르(Rajgir)가 ‘플리에틸렌’ 없는 ‘친환경 지역’으로 탈바꿈 할 전망이다.

인도 언론매체인 〈포스트(Post)〉지는 12월 4일(현지시간) 비하르주(州) 관광청 대변인의 말을 인용, “불교도의 순례자인 라지기르에서 ‘플리에틸렌 제품’을 사용하지 말자”는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보도했다.

비하르주 관광청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라지기르를 방문한 관광객 대부분 거리는 물론 하수구 등에 버려진 비닐 백에 적잖게 혐오감으로 보인다는 데 주목해 기획된 것으로, 호텔, 상점 등에서 40 마이크론 미만의 폴리에틸렌 제품(비닐 백 등) 사용을

금지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관광청은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40 마이크론 미만의 폴리에틸렌 제품’의 사용을 모니터링 하는 ‘감시단’을 발족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위반 업체를 적발, 처벌과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비하르주 관광청은 “위반자는 600 루피(약 10,300 원)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이번 캠페인이 성공하면 인도의 8대 불교 성지 가운데 첫 ‘친환경 불교 성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지기르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교화에 나섰던 주요 도시 중의 하나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살았다고 전해지는 바이바르산(山)의 성(城), 〈법화경〉과 〈무량수경〉을 강의하였다고 하는 영취산, 최초 불교대학인 나란다 대학 등의 불교 유적이 많아, 매년 수 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대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테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